논어 19편 자장 24장 · 원문·풀이

叔孫武叔毁仲尼。子貢曰：「無以爲也，仲尼不可毁也。他人之賢者，丘陵也，猶可踰也；仲尼，日月也，無得而踰焉。人雖欲自絕，其何傷於日月乎？多見其不知量也！」

독음 · 숙손무숙훼중니 자공왈 무이위야 중니불가훼야 타인지현자 구릉야 유가유야 중니 일월야 무득이유언 인수욕자절 기하상어일월호 다견기부지량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를 헐뜯는 말에 자공은 다른 현인이 언덕이라면 공자는 해와 달이라 그 빛을 해칠 수 없다고 답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叔 아재비 숙 숙 / 孫 손자 손 손 / 武 굳셀 무 무 / 毁 헐 훼

仲 버금 중 중 / 尼 여승 니 니 / 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

曰 가로 왈 / 無 없을 무 무 / 以 써 이 이 / 爲 할 위

也 어조사 야 / 不 아닐 불 / 可 옳을 가 가 / 他 다를 타 타

人 사람 인 / 之 갈 지 / 賢 어질 현 현 / 者 놈 자

丘 언덕 구 구 / 陵 큰 언덕 릉 릉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踰 넘을 유 유

日 날 일 일 / 月 달 월 월 / 得 얻을 득 득 / 而 말이을 이

焉 어찌 언 언 / 雖 비록 수 수 / 欲 욕심낼 욕 욕 / 自 스스로 자

絕 끊을 절 / 其 그 기 / 何 어찌 하 하 / 傷 상처 상 상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乎 어조사 호 / 多 많을 다 다 / 見 볼 견 견

知 알 지 / 量 헤아릴 량 량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